



기획시리즈



최명섭
임업연구원

과명 : 장미과
 학명 : *Rosa rugosa*
 영명 : Rugosa Rose,
 Hamanas Rose
 한명 : 海棠花
 일명 : はまなす

옛 선조들이 화중신선「花中神仙」으로 예찬해온 해당화는 기다림에 지친 여인의 한이 맺힌 전설이 있다. 옛날 孤山處士는 매화를 사랑하여 부인으로 삼았다는 연화(艶話)가 있고 인도의 어느 승려는 바오렌스꽃을 너무 사랑하여 처로 삼아 자녀까지 낳았다는 전설이 있으나 군방보(群芳譜)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던 여인의 한맺힌 눈물이 뿌려져 해당화가 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말며…」
 「물노니 저 선사(禪士)야

해당화



▲해당화

관동풍경 어떻더니
 명사십리에 해당화 피어있고」
 예나 지금이나 해당화를 소재
 로한 노래들도 수없이 많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 나무를 사랑하

고 아껴왔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
 다.

1. 생태적 특성

해당화는 한국, 일본, 중국에



▲해당화 근경



▲해당화 열매

분포하며 전국의 해안가 및 산기슭에 자라는 낙엽활엽 작은 키나무로 높이 1.5m정도 자라며 뿌리에서 많은 줄기가 나와 커다란 군집을 형성하여 자란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순비기나무와 함께 살지만 내륙 깊숙한 곳에서도 추위와 공해에 잘 견디며 번성하고 척박한 토양이나 경사지, 습기가 없는 땅에서도 잘 자란다.

2. 형태적 특성

줄기와 가지에 가시가 많고 털이 뻣뻣하며 잎은 어긋나고 깃털모양으로 7~9개의 소엽으로 구성된 기수우상복엽으로 소엽은 두

껍고 타원형 또는 타원상 도란형으로 길이 2~5cm이며 주름이 많고 운채가 있으며 뒷면은 맥이 튀어나고 잔털이 밀생하며 선점이 있고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꽃은 새가지 끝에 정생하며 5월에서 8월까지 지름 6~9cm의 자홍색으로 피며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열매는 편구형으로 지름 2.0~2.5cm이고 8월에 홍색으로 익는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해당화의 유사종으로는 꽃과 열매가 적은 것을 개해당화(var. *kamtschatica*), 꽃잎이 만첩인 것을 만첩해당화(for. *plena*), 가지에 가시가 거의없고 소엽은 작고 좁으며 잎에 주름살도 적은 것을 민해당화(var. *chamissoniana*)라 한다.

3. 조경수로써의 활용

왕성한 푸른 잎과 함께 피는 진분홍색의 꽃은 해안가 모래밭에 야성적이고 원시적인미를 풍겨 보는이의 마음을 저절로 설레게 하며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은은한 꽃 향기가 해풍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 향기로우며 가을에 익는 붉은 열매도 관상가치가 있고 식용으로 할 수 있다.

가시가 많고 결가지가 많이 나오므로 낮은 생울타리용으로 이용한다. 해풍이나, 도로변 절개지의 척박한 토양에도 강하므로 바닷가 호안지대의 식재에 좋으며 경관용으로는 해수욕장이나 바닷

가 관광지등에 군식하면 좋다. 원산 송도원의 해수욕장이 해당화로 이름이 높듯이 해수욕장 주변에 해당화를 많이 식재하여 명소로 만들면 보다 많은 피서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4. 번식법

종자 및 꺾꽂이, 포기나누기가 새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한번에 많은 묘목을 얻고자 하면 종자번식을 해야하는데, 종자번식은 가을에 채취한 종자의 겉껍질을 벗겨 과피는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정선된 종자는 직파하거나 종자와 모래를 3대1로 섞어 노천매장해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한다.

꺾꽂이는 싹트기전에 가지를 15~20cm 길이로 잘라 깨끗한 모래에 꽂으면 쉽게 발근한다. 단 삽수를 다룰 때 가시가 많아 불편하다.

포기나누기가 가장 확실한 번식법으로 해마다 지상부에서 여러줄기가 많이 나오므로 뿌리를 붙여 잘라 독립한다.

5. 그 밖의 용도

해당화의 꽃에서는 장미유(油)의 원료를 뽑으며 신선한 꽃은 수렴작용이 있어 약용으로 쓰이며 차나 술에 넣어 향기를 즐기는 풍류도 있다. 열매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생식해도 좋고 중국에서는 꿀에 재어 먹기도 한다.